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코로나19 이후 사회회복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여성 정책의제 발굴 방안¹⁾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팬데믹 위기 이후 성평등 사회의 회복과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제 발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른바 ‘위드코로나’²⁾)이 시행되면서 위기의 새 국면을 맞이하였다.

사회 회복탄력성(social resilience)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사회적 위기 및 재난에 대처하고 적응하며,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내는 집합적 능력 또는 사회 메커니즘의 역량을 의미한다(Saja et al., 2021:4-7). 위기 대처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는 사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밑작업이 된다. 이는 여성·가족 정책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새로운 위기이지만, 성 중립적 위기가 아니다. 위기의 결과는 기존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난 성별화된 구조와 맥락에 의해 위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평등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배양하기 위한 조건들을 모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1) 이 원고는 2021년에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 조선미·신우리·김은정·임연규(2021).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여성 정책의제 발굴 방안 연구”의 일부를 발췌 또는 수정하여 재구성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2)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동 연구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체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개념인 ‘위드코로나(with Corona)’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코로나19는 여성의 삶에 다양한 영향과 변화를 야기하였다. 위드코로나 시기에는 위기 속에 변화된 여성의 삶을 진단함으로써 위기 이후 사회회복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 비전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지난 코로나19 시기 동안 여성·젠더·가족 분야와 관련하여 등장했던 전반적 이슈동향과 정책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장기적 위기대응을 위한 전략으로서 위드코로나 시기에 새롭게 개발해야 할 여성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주요 의제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팬데믹 충격으로 변화된 젠더지형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성 정책의제 발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제 발굴에서 빅데이터는 큰 장점을 갖는다. 특히 온라인에서 생산된 소셜 빅데이터는 신속히 사회 트렌드를 파악하고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유익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팬데믹 위기 기간에 나타난 주요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전체 사회의 정책지형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개발을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의 발굴과 활용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한 소셜 빅데이터로 위드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여성 정책의제를 시범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는 오늘날 정책환경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여성 정책연구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가족 빅데이터와 성인지적 관점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필요성

데이터 기반 정책은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making), 또는 빅데이터 기반 정책이나 과학적 정책결정 등으로 불린다(고길곤 외, 2019: 8).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 되는 도구는 객관적 근거로서 데이터의 구축과 이의 경험적 분석에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 분야에서도 데이터 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 분야에서 공공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은 여러 제약사항이 있다. 첫째로 여성·가족 분야 공공 빅데이터의 개념과 범주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소관부처별 생산, 보유 및 관리 중인 공공 데이터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에서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 지원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합의된 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가족정책 분야의 공공데이터 거버넌스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계부처 간 데이터 공동이용을 조성할 주체나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며, 데이터 관련 전담인력 배치나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활용도 타 분야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빅데

이터를 활용한 여성정책 개발과 평가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공적 영역에 드러낼 수 있는 협력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 빅데이터 기반 정책개발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부족이다. 데이터는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기 위한 경험적 기준이 된다. 현재 공공 데이터 정책은 대부분 성 중립적인 관점에서 구축되어 있어,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의 지향점이 여성정책 목표와 수렴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가족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은 특히 여성·가족(공공)빅데이터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세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문유경 외(2016, 2017) 연구에서 제안된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문유경 외(2016)은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① “여성가족 정책과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문유경 외, 2016:11)”, ② “빅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거나 성별 분리를 시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데이터(문유경 외, 2016:15)”, ③ “현재 빅데이터를 원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성별의 차이를 모색(문유경 외, 2016:17)”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정의하였다. 또는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기도 한다. 문유경 외(2017)에 따르면, 광의의 개념은 “모든 빅데이터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의 빅데이터에서 여성가족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재분석할 경우(문유경 외, 2017:15)”이며, 협의의 개념은 “여성가족 정책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에서 발생하는 자료들의 다양한 결합으로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문유경 외, 2017:16)”로 정의된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 시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은, 데이터는 그 자체로 성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현장에서 데이터가 생산·관리되고 정책자료로 활용되는 과정은 성 불평등한 맥락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또는 특정집단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배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은 자연어 처리나 딥러닝/머신러닝 기법 등 최근 빅데이터를 접목한 분석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기존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인식을 재생산하는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예를 들어, Friedman et al., 2019, August; Martínez, García, & Sustaeta, 2020 연구 등). 이는 데이터 생산과 분석, 활용과정에서 젠더 불평등한 사회의 관점에 의한 선별과 개입이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데이터 생산은 기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배태되고, 사회현상의 분석은 특정한 문제를 드러내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데이터가 가진 객관성의 힘은 정책수립의 도구로서 누구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향후 여성·가족 정책개발에서 데이터 생산·관리, 데이터 분석의 개념적 범주와 분석목표, 정책 발굴체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 정책의제 발굴 사례

코로나19 시기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위드코로나 시기에 필요한 여성 정책의제를 발굴하고자 한다.³⁾ 정책의제 발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19.1.~2021.11.) 동안 대형 온라인 포털인 네이버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수집, 분석하여 코로나19 관련 여성·젠더 관련 언급 주제의 변화와 이슈를 파악하였다. 뉴스 기사, 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채널 중에 뉴스 기사에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뉴스가 사건사고 소개, 여론인식 전달, 정부시책 및 제도/프로그램 발표 등 다양한 성격의 정보원을 망라하고 있고, 이슈의 사회적 중요도에 대한 공식화된 여론 형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석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분석채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위드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여성 정책의제를 시범적으로 발굴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한 서면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여성·젠더 정책 또는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인에게 본 연구에 제시된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족돌봄, 여성의 노동·일자리, 여성의 정신건강, 젠더갈등과 여성혐오, 여성폭력 등 분야별 연구과제 개발이 필요한 정책의제들을 발굴하도록 요청하였다.

본고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시기의 이슈동향 분석과 정책의제 발굴과 관련하여, 빅데이터가 정책개발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일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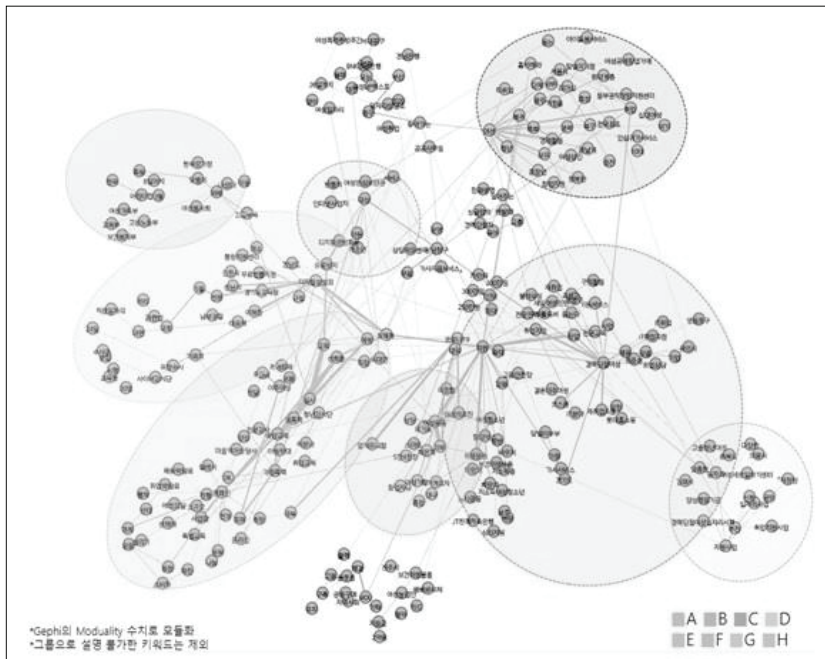
1) 정책수요 분석 사례: 정책/제도 관련 키워드 의미연결망 분석

소셜 빅데이터에서 수집된 정책/제도 관련 내용과 주요 키워드 간 관계를 유형화하고, 이슈동향 대비 정책/제도 관련 관심사에서 나타난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책/제도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을 연관어 군집으로 유형화하여 2020~2021년 데이터 중 '코로나'가 언급된 정책/제도 관련 키워드들 간의 의미연결망(Network)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의미연결망 내 연결 밀도가 높은 군집을 서로 묶어 키워드를 다수의 커뮤니티 구조로 나타낼 수 있는 네트워크 모듈성(network

3) 조선미 외(2021) 4장에서 전체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modularity)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1]⁴)에서 코로나19 관련 정책/제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 8개의 모듈로 군집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각각 ‘코로나19 관련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어려움 지원(모듈A)’, ‘코로나19 시대의 다양한 여성폭력 해소(모듈B)’, ‘코로나19 시대의 여성 근로자 지원(모듈C)’, ‘디지털성범죄 근절(모듈D, 모듈F)’, ‘코로나19 취약계층 보건/위생용품 지원(모듈E)’,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모듈G)’, ‘코로나19로 인한 일·가정 양립 문제 해소(모듈H)’, ‘기타 행사/지원’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표 1>은 2020~2021년 중 ‘코로나’ 언급 ‘정책/제도’ 관련 키워드의 의미연결망 분석결과에서 도출한 상세 모듈의 내용과 특성을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노동·일자리, 일·가정 양립, 여성 폭력,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여성 지원정책이 분류되었다.



[그림 1] 코로나 언급 ‘정책/제도’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 4) 해당 분석은 연결망 분석에서 추출할 수 있는 지표 값 중 하나인 모듈성(modularity)를 도출하여 코로나19 언급 ‘정책/제도’를 유형화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연결 밀도(노드의 굵기)가 높은 그룹끼리 서로 묶여 키워드를 다수의 커뮤니티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코로나19 언급 ‘정책/제도’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상세 모듈

모듈	키워드	설명	코로나19 연관성
A	경력단절여성, IT취업지원, 여성청소년위생용품, 구직활동, 고용안전망, 심리지원, ...	각종 기관에서 경력단절여성, 여성청소년,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취창업/교육/물품/정서지원	코로나19 관련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어려움 지원
B	성폭력, 성희롱, 청년감시단, 예방교육, 폭력피해 이주여성, 캠페인전개, 청년감시단, 직장내 성희롱, ...	여성폭력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활동 등	코로나19 시대의 다양한 여성폭력 해소
C	창업지원, 경제활동, 여성상인, 직장맘지원센터, 홈카메라, 안심귀가 서비스, 여성리더십증진, ...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코로나19 시대의 여성 근로자 지원
D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 위장수사, 무료법률지원,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	디지털성범죄 근절1
E	스마트체온계, 여성용품, 기부, 자가격리자, 여성의료진, ...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위생/보건용품 지원	코로나19 취약계층 보건/위생용품 지원
F	디지털성범죄물, 방통위, 유통방지, 여성안심보안관, ...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	디지털성범죄 근절2
G	직장맘, 고졸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사업, 공모, 추진, 지원사업,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	기관/단체의 여성 일자리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H	한부모가정, 맞벌이, 긴급보육, 여성봉사회, 전국 어린이집, 이웃위해, ...	특정한 가정형태(한부모, 보육, 맞벌이)를 위한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일·가정 양립 문제 해소
기타	여성UP엑스포, 여성폭력추방주간, 일자리상담소, 지역사회, MOU, 플랫폼, 체결, 구축, 가사지원서비스, 싱글맘, ...	기타 행사, MOU 협약 및 지역사회 활동, 한부모 가정 지원 등	기타 지원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여성폭력 관련 대응정책은 주로 비대면/온라인 활동의 일상화에 따른 디지털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외에 성희롱,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서 모듈B(코로나19 시대의 다양한 여성폭력 해소)에 ‘교육, 실시, 예방 교육’과 같은 키워드가 군집 내 타 키워드와 핵심 위치에 나타난 것처럼 주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인식개선 등의 차원에 걸쳐 있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 대상은 ‘경력단절여성’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여성 대상 지원정책이 경력단절여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 취약계층 관련 지원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정책에 있어 사각지대를 보여 준다. 이는 취약계층 여성 대상 정책이 물품지원과 같은 일회성, 캠페인 중심의 지원에 제한되었다는 한계와, 여성건강 정책에서 여성의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정신건강 악화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나타낸다.

2) 소셜 빅데이터 기반 여성 정책의제 발굴 사례

아래부터는 코로나19 시기의 영향력을 크게 받은 분야인 ‘가족돌봄’, ‘여성의 노동·일자리’, ‘여성의 정신건강’의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의제 발굴의 시범 사례를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는 전체 뉴스기사 중 여성 관련 ‘사회적 문제점’을 나타내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전후 여성 관련 사회적 문제점을 사전에 구성을 통해 ①성범죄 문제, ②살인·폭력 등 문제, ③젠더갈등·성평등 인식 문제, ④노동·일자리 문제, ⑤정신건강 문제, ⑥가족돌봄 문제, ⑦그 외 문제(사건사고 문제, 경제적 빈곤 문제, 결혼·출산 문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동 정보 중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를 선별함으로써, 전체 코로나19 시기에 나타난 동향과 별도로 코로나19와 여성이 직접 언급된 내용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간에서 전체 ‘여성’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기사 중 ‘코로나’ 키워드가 언급된 데이터를 1차로 분류하고, 해당 데이터 내에서 사회적 문제점 데이터를 유형별로 2차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와 연관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1' 사회적 문제점: 코로나19 미언급		20~21' 사회적 문제점: 코로나19 언급		비중 차이
		언급량	비중	언급량	비중	
구분		0 20000 40000 60000		0 1000 2000 3000		
1	성범죄		64.1%		48.4%	-15.66%p
2	살인·폭력 등		17.3%		10.2%	-7.09%p
3	젠더갈등·성평등 인식		9.7%		9.6%	-0.06%p
4	노동·일자리		3.9%		16.1%	+12.24%p
5	정신건강		2.6%		6.8%	+4.20%p
6	사건사고		1.5%		1.1%	-0.40%p
7	가족돌봄		0.4%		5.5%	+5.05%p
8	경제적 빈곤		0.4%		1.9%	+1.50%p
9	결혼·출산		0.1%		0.3%	+0.22%p

출처: 조선미 외(2021) p. 223 [그림 IV-15] 일부 수정

[그림 2] 코로나 언급 유무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비중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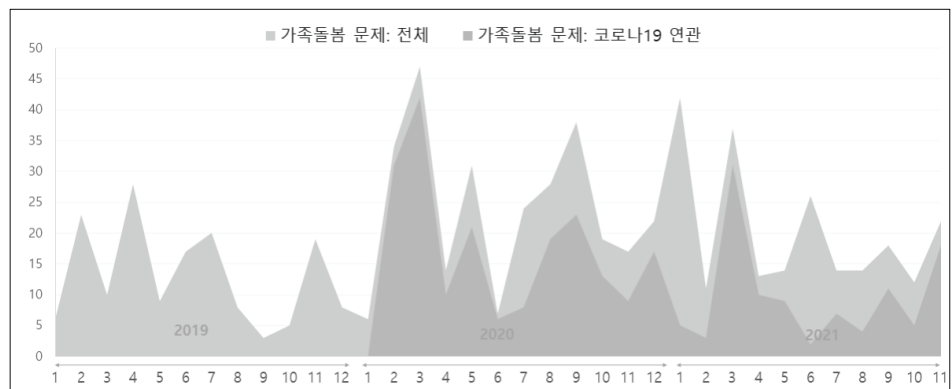
분석 결과,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를 언급한 사회적 문제점 데이터는 5,045건으로, 전체 사회적 문제점 데이터 합계의 7.1%였다. 코로나19가 언급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점 내 비중보다 코로나19가 언급된 사회적 문제점 내 비중이 더 큰 유형은 노동·일자리

리 문제(+12.24%p), 가족돌봄 문제(+5.05%p), 정신건강 문제(+4.20%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고).

아래부터 전체 사회적 문제점 정보량 중 코로나19와 언급 비중이 높은 가족돌봄, 여성의 노동·일자리, 여성의 정신건강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슈동향에 관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과 이에 기초한 전문가 자문 결과로 정책의제 발굴 과정을 제시하였다.

가. 가족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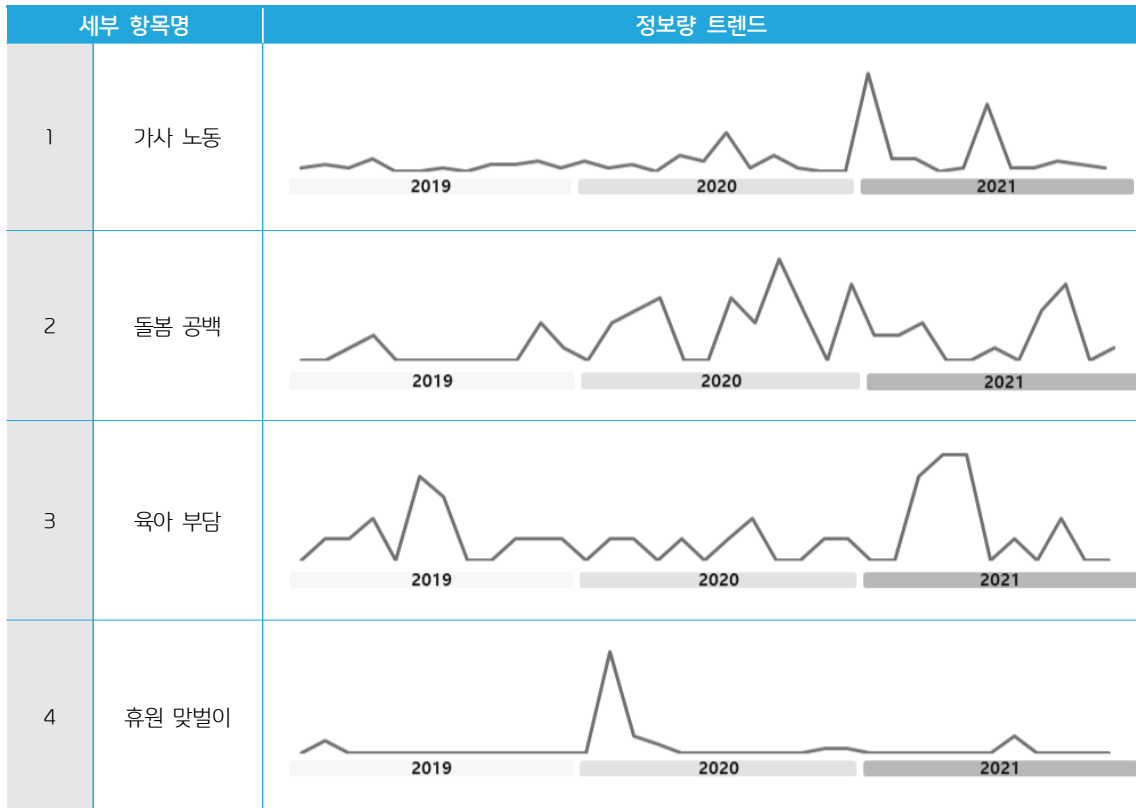
첫 번째 논의 안건은 가족돌봄 문제이다. 가족돌봄 문제에 관한 정보량은 수집된 전체 데이터 144,667건 중 0.5%인 666건이다. 전체 가족돌봄 데이터 중에 코로나19 연관 데이터는 2020년 69.3%, 2021년 47.1%로 타 사회문제 유형보다 코로나19 연관 정보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2.2%p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보육시설 폐쇄에 따른 돌봄공백 문제 이슈가 집중적으로 주목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 '가족돌봄 문제' 전체 월간 정보량 추이

[그림 3]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돌봄부담 관련 정보량은 코로나19 정보량 추이와 연관성이 높은 주제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코로나19 시기 동안 '가사노동', '돌봄공백', '육아부담' 등의 키워드에 대한 언급량이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원 맞벌이'는 첫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으로 돌봄시설 폐쇄가 나타난 2020년 초반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돌봄공백'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타난 특징적인 키워드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맞벌이와 가사 및 육아부담에 대한 이슈들이 다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이전 시기(2019년)에는 일·가정 양립 문제 관련 연관어가 상위권에 위치한 것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시기(2020~2021년)부터는 맞벌이와 돌봄공백 관련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 및 휴교 조치로 인해 맞벌이 부모를 중심으로 돌봄 부담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



출처: 조선미 외(2021). p. 251. [그림 IV-27]

[그림 4] '가족돌봄 문제' 세부 항목별 월간 정보량 트렌드

반면,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는 또 다른 돌봄공백의 위기를 야기했는데, 저소득층, 취약배경의 아동·노인, 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기존 돌봄제공으로부터 더욱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 부재로 인한 아동 방임 사건(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형제가 라면을 조리하다 화재발생으로 사상사고를 당한 사건⁶⁾ 등), 코로나19 관련 고독사 사건(노모가 자택에서

5) 예시 자료: 류인하(2020.12.27.).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직장맘 출퇴사 원인됐다.」. 경향신문(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50798>에서 2022.1.25. 인출).

사망하고, 함께 동거 중인 발달장애 30대 남성이 방치되어 구걸하다가 발견된 사건⁷⁾ 등) 등은 코로나19를 배경으로 한 일회적 사건사고가 아닌 돌봄과 개입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못하는 또 다른 돌봄공백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는 ‘돌봄제공자(care giver)’와 ‘돌봄수혜자(care receiver)’ 양면에서 돌봄공백에 따른 ‘이중화된 돌봄위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드코로나 시기에는 ‘돌봄’ 문제를 돌봄 제공과 수혜의 양립가능한 관계로부터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재구성하고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한 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의제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빅데이터 분석 기반 가족돌봄 정책의제 관련 논의안건 도출

여성 정책의제 발굴 [가족돌봄]

코로나19 위기는 돌봄공백에 따른 돌봄제공자와 돌봄수혜자 양면의 ‘이중화된 돌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 위드코로나 시기에 발굴해야 할 정책의제는 무엇인가?

나. 여성의 노동·일자리

두 번째 논의안건은 여성의 노동·일자리 문제이다. 노동·일자리 문제는 수집된 전체 데이터 144,667건 중 2.8%인 4,080건이 해당되었다. 코로나19가 연관어로 나타난 노동·일자리 문제 데이터의 경우, 전체 노동·일자리 문제 데이터 중 2020년 30.3%, 2021년 36.2%로 나타나면서 2020년 대비 5.9%p로 증가하였다. 전반적 추이를 살펴보면 노동·일자리 문제는 주로 ‘경력단절’, ‘유리천장’, ‘해고’, ‘채용 차별’과 관련된 언급이 주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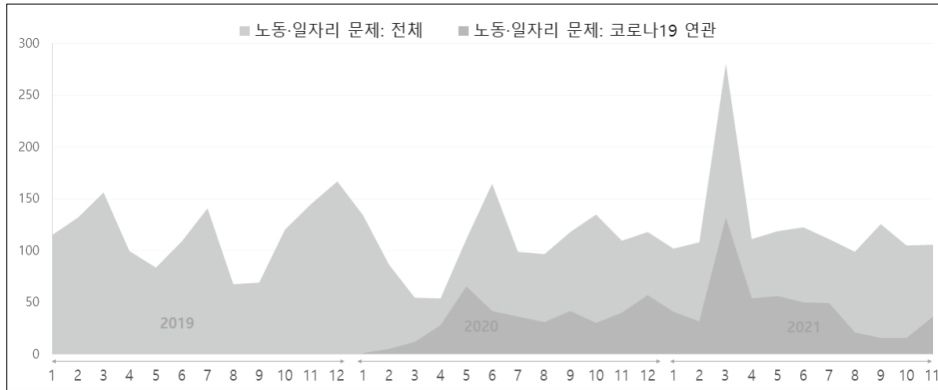
노동·일자리 문제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와 높은 연관성이 나타났는데, 전체 노동·일자리 문제 관련 정보량 대비 코로나19가 연관 키워드로 제시된 정보량의 비중은 2020년 30.3%, 2021년 36.2%로 타 유형의 문제점에서 나타난 값에 대비하면 그 비중이 높았다. 또한 전체 노동·일자리 문제 관련 데이터 추이는 코로나19 언급 데이터의 추이가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고).

노동·일자리 문제와 코로나가 같이 언급되는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력단절, 해고, 고용위기와 같은 일자리 상실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주요 키워드별 정보량 트렌드(그림 6)에서,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는 ‘경력단절’, ‘해고’ 등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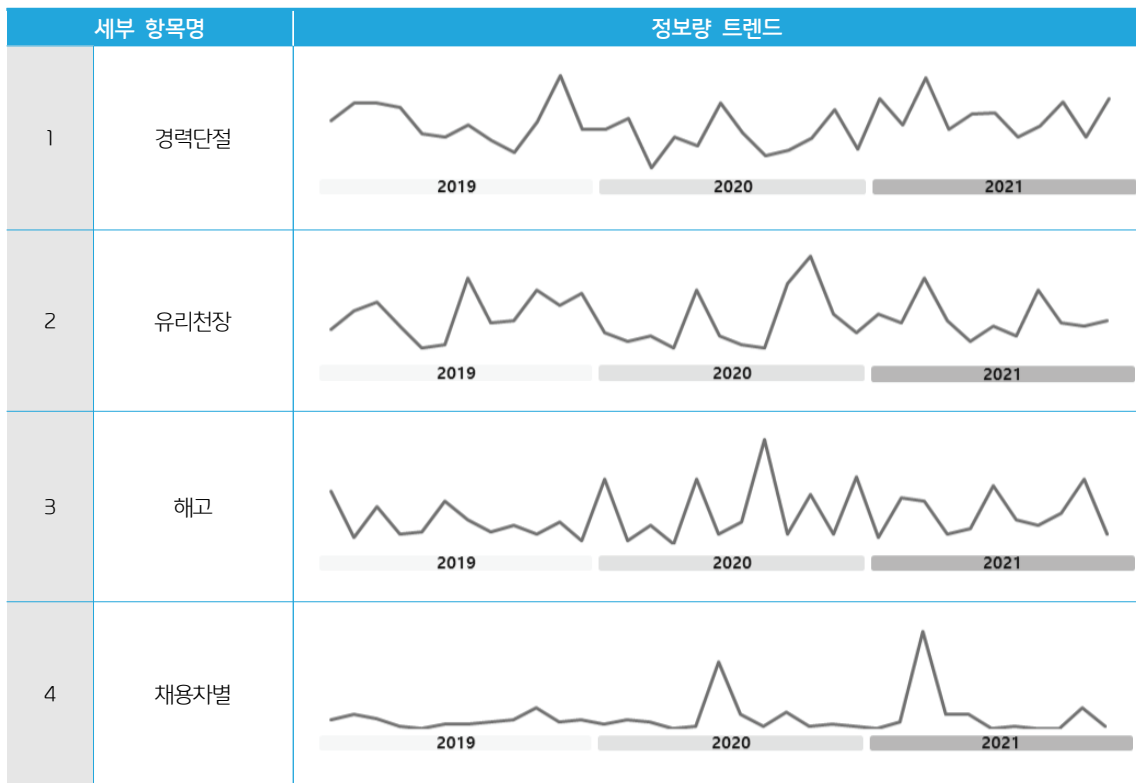
6) 예시 자료: 채널A 뉴스라 라이브(2020.9.18.). 「화재 전날 외출한 ‘라면 형제’ 엄마…코로나 돌봄 사각지대」. 채널A(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97788>)에서 2022.1.15. 인출).

7) 예시 자료: 이정윤(2020.12.14.). 「코로나가 방치한 방배동 母子의 비극…60대 엄마 고독사, 발달장애 아들은 노숙」. 아시아경제(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809728>)에서 2022.1.15. 인출).

‘채용차별’은 특정시기 등장한 사건사고 관련 영향이 더 많았고 ‘유리천장’은 조사기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로 볼 수 있다.



[그림 5] ‘노동·일자리 문제’ 전체 월간 정보량 추이



출처: 조선미 외(2021). p. 223. [그림 IV-23] 일부 발췌

[그림 6] ‘노동·일자리 문제’ 세부 항목별 월간 정보량 트렌드

코로나19 이전 시기에는 여성의 취업 방법이나 취업 관련 방해요인 대한 이슈가 연관 키워드로 자주 등장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고용위기’ 자체가 핵심 이슈가 되었다.⁸⁾ 여성근로자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로 인해 우선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타났다. 또한 돌봄공백에 따른 일-가정 양립 어려움으로 인해 경력단절여성은 코로나19 시기에서도 지속적인 문제로 출현하였다.⁹⁾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비전형근로자(단기근로자, 파견근로자), 서비스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주된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성 노동 관련 정책/제도 추이는 주로 경력단절여성이나 여성농업인,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취·창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코로나19 충격을 가장 크게 경험한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코로나19는 ‘시세션(shecession)’으로 불릴 만큼 전반적으로 여성의 고용위기로 요약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여성노동과 일자리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위드코로나 또는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여성고용은 이전 시기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위드코로나 시기를 대비한 정책의제 발굴이 필요하다.

〈표 3〉 빅데이터 분석 기반 여성의 노동·일자리 정책의제 관련 논의안건 도출

여성 정책의제 발굴 [여성의 노동·일자리]

코로나19는 여성노동과 일자리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여성고용은 이전 시기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 발굴해야 할 정책의제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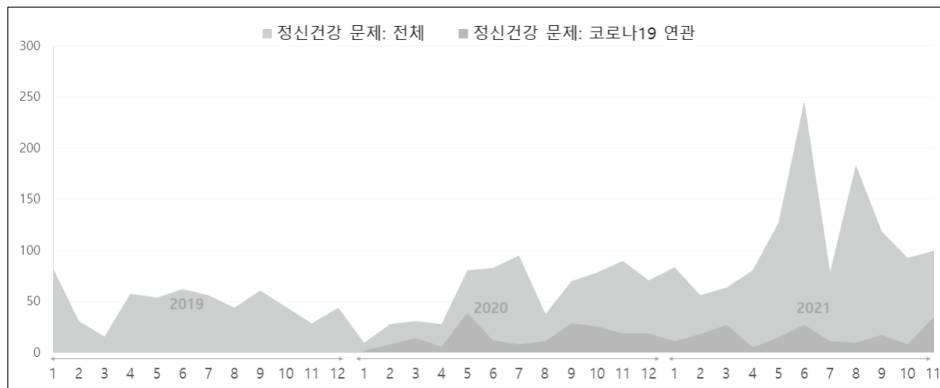
3) 여성의 정신건강

세 번째로는 여성건강 문제가 있다.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정보량은 수집된 전체 데이터 144,667건 중 1.7%인 2,519건을 차지하였다. 정신건강 문제 역시 가족돌봄이나 노동·일자리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 추세에 있어 코로나19와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즉, 2020년 전체 정보량 대비 코로나 연관 비중은 2020년 27.5%, 2021년 14.9%로 타 사회 문제 유형 대비 코로나19 연관 정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림 7]에서 전체 정신건강 관련 정보량 추이는 2019년에는 월별 정보량이 비슷하게 유지되나, 2020년 이후인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증가되고 이후 2021년까지 계속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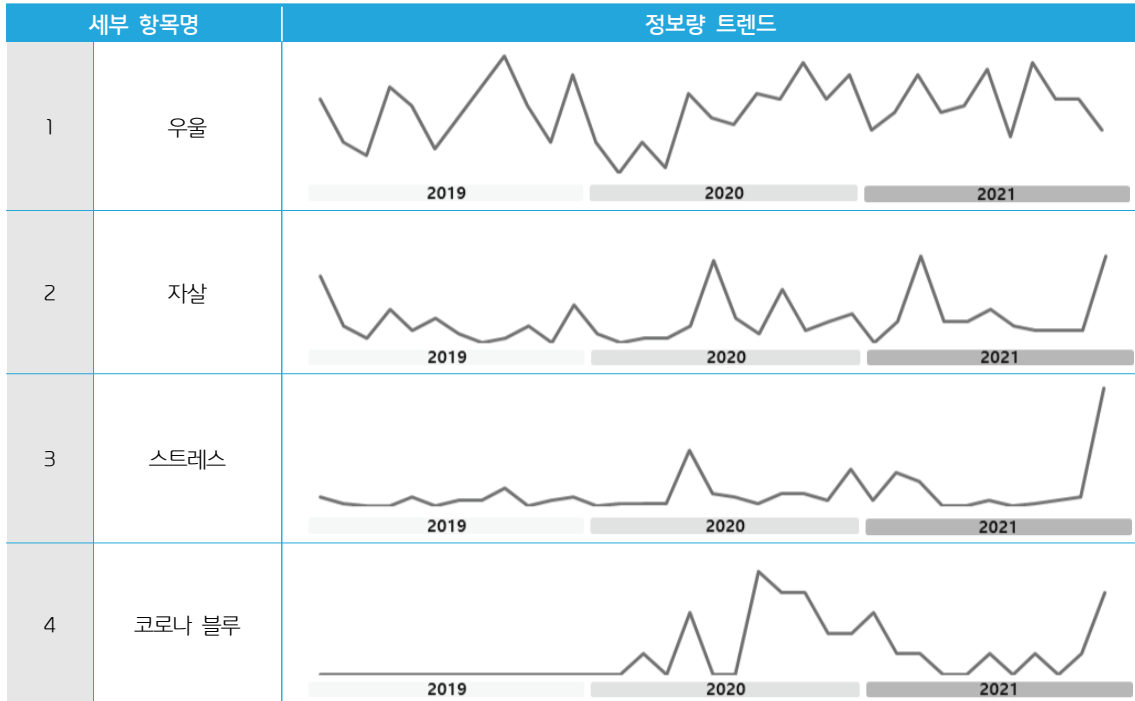
8) 예시 자료: 류인하(2020.5.19.), 「서울시 2040 워킹맘 ‘코로나19’ 부담하고 위기...절반 이상 스트레스 고위험군」, 경향신문(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09796>)에서 2022.1.13. 인출).

9) 예시 자료: 안서현(2021.8.10.), 「복직 포기한 엄마들...돌봄 부담에 '경력 단절' 증가」, SBS(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913750>)에서 2022.1.13. 인출).

[그림 8]에서 세부 주제별 경향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자살’, ‘스트레스’, ‘코로나 블루’ 관련 정보량이 급증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언급 데이터 중 상위 키워드는 ‘우울’, ‘스트레스’, ‘극단선택’, ‘자살’ 등으로 정신건강 악화 문제가 주된 이슈로 나타났다. 실제 뉴스기사 자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관련 내용이 2020년 이후 다수 보도되고 있었다.



[그림 7] ‘정신건강 문제’ 전체 월간 정보량 추이



출처: 조선미 외(2021). p. 246. [그림 IV-25] 일부 발췌

[그림 8] ‘정신건강 문제’ 세부 항목별 월간 정보량 트렌드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보량이 증가하였으며, 가족돌봄, 노동·일자리와 함께 코로나19 추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이후 우울, 스트레스, 자살생각 등을 경험하는 여성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언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30대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 비정규직 여성, 한부모 여성, 주부 등 관련 우울 또는 자살 증가가 언급되기도 하였다.¹⁰⁾ 코로나19와 우울 관련 연관어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정신건강 악화는 주로 경제적 빈곤과 함께 돌봄 스트레스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립,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키워드와 함께 군집이 형성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여성폭력 증가가 여성의 정신건강 악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시기는 돌봄 부담, 고용위기, 경제적 상황 악화, 여성폭력 증가 등 복합적 위기상황 속에 여성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취약한 배경에 놓인 여성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이와 관련 충분한 정책의제 발굴의 검토가 요청된다.

〈표 4〉 빅데이터 분석 기반 여성의 노동·일자리 정책의제 관련 논의안건 도출

여성 정책의제 발굴 [여성의 정신건강]

워킹맘, 청년층과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취약한 배경에 놓인 여성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같은 관점에서 위드코로나 시기에 발굴해야 할 정책의제는 무엇인가?

도출된 논의안건을 기초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여성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3인(전문가 A, B C)¹¹⁾에게 앞서 제시했던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하였고, 분야별로 위드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연구과제 개발이 필요한 여성정책 의제들을 발굴하도록 요청하였다.

자문진이 제시한 위드코로나 시기 주요 정책의제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가족돌봄과 관련하여 정책개발이 필요한 과제로 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② 지원대상별 돌봄서비스 다각화, ③ 돌봄서비스 질적 제고 및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제시되었다. 다음으

10) 예시 자료: 기선완(2020.9.25). 「코로나 이후 높아진 30대 여성 자살률...비대면 시대 사회안전망 더 촘촘히 [기고]」. 경향신문(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34484>에서 2022.1.11. 인출). 양민철(2021.2.1.).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무직·주부 스트레스 많다」. KBS(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981575>에서 2022.1.11. 인출).

이순용(2019.8.26.). 「싱글맘 우울증 주의 ... 기혼모 보다 위험성 두 배 높아」. 이데일리(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454238>에서 2022.1.11. 인출).

11) 전문가 자문단은 여성정책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전문가 A), 여성학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전문가 B), 공공사회학 분야 대학교 종사자(전문가 C)로 구성되었다.

로, ① 여성 노동·일자리와 관련하여, ②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제도 개선, ③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한 여성 고용유지 지원, 대상별, 생애주기별 다원화된 일자리 지원 정책 개발이 추후 필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여성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① 자기돌봄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위기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이 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분석결과는 위기의 장기적 대비를 위해 여성 정책분야의 의제 발굴이 결국 돌봄과 노동, 건강 등 영역 간 통합적 접근에 기반해야 함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여성이 경험하는 돌봄공백 문제로 인한 일·가정 양립부담은 곧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경제적 취약성을 가중시키며, 이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조치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고립된 개인들은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또는 비대면 기술 기반 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성범죄 등 디지털 기술기반 폭력을 더 경험하기 쉬워진다. 이와 같은 환경은 여성의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요인이 되거나 혹은 성별 갈등과 대립, 혐오 표현을 증폭시키는 토양이 되기도 한다. 여성이 경험하는 위기는 어느 한 분야의 노력보다는 상호교차적 시야로 접근해야 하며,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제발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위드코로나 시기 사회현안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5〉 전문가 자문에 의한 위드코로나 시기 정책의제 발굴 결과

정책과제		자문의견
가족돌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를 확대하고 돌봄공백으로 인한 재택근무를 적극 도입해야 함(전문가 A)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도 적극 도입이 필요함. 주4일 근무 제시행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전문가 A)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함(전문가 B) 출산휴가, 육아휴직 외에 상시적으로 가족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돌봄휴가’ 필요(전문가 B)
	지원대상별 돌봄서비스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돌봄기관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집단별 시설이 존재하는데,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돌봄 위기에 놓인 개인이 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별 서비스(제도) 제공이 필요함(전문가 B) 재가 방문 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전문가 A)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 가장 약한 고리들을 중심으로 돌봄공백이 나타났으므로 이의 관심이 필요함(전문가 C)
	돌봄서비스 질적 제고 및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생활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성희롱 문제에 보호장치가 없음. 재가 방문 서비스 신청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돌봄 노동자 보호조치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 도모가 필요함(전문가 A) 돌봄제공자 대 돌봄수혜자 비율(예시: 보육교사 1인당 돌보는 아이 수 등)을 조정해나가야 함(전문가 B)

정책과제		자문의견
여성 노동·일자리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이나 비정형 노동은 기존의 노동자 보호 제도의 바깥에 놓인 경우가 많음. 프리랜서 노동과 특수고용직, 시간제 노동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고 고용의 질과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체를 만드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함(전문가 A) • 코로나19 이후 배달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이 성장한 사례처럼 산업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코로나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 문제 대응과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에 여성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체계 개편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전문가 C)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한 여성 고용유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책근무, 시차출퇴근제도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면 기혼여성이 고용을 지속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전문가 B)
	대상별, 생애주기별 다원화된 일자리 지원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 노동정책이 기혼유자녀 여성 중심의 여성일자리 교육이나 재취업 교육에 집중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세대별로 여성생애 주기 속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과제를 포괄하는 여성노동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전문가 A)
여성 정신건강	자기돌봄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된 생활을 하는 1인 가구나 실업자, 취업준비생,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정신건강의 자조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전문가 A) • 정신건강 증진은 상담에 국한되지 않음. 청소와 요리 등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더 고립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자기돌봄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생활지원사 역할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이에게 서비스 제공의 다각화를 제안함. 일상생활 유지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체력단련 프로그램 관련 플랫폼 제공이 필요함(전문가 A)
	위기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시(가정폭력, 심한 우울 등) 가족 아닌 '지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긴급전화 개설, 각 지역마다 구청이나 군청 보건소, 약국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마련이 필요함(전문가 B)

주: 조선미 외(2021). p. 282 <표 IV-43>, p. 286 <표 IV-44>, p. 289 <표 IV-45>에 제시된 내용을 발췌 및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하였음.

4. 정책제언

팬데믹 위기는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과 변화를 야기한 것처럼 여성의 삶에 있어 일터와 가정,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주요 주제별로 어떤 사회이슈가 나타났는지 뉴스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위드코로나 시기에 후속적 검토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주제별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여성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생산과 분석, 해석과 활용의 전 과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았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첫째, 팬데믹 위기 이후 성평등 사회 회복을 위한 지속적·정기적 정책의제의 발굴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기반 의제발굴은 향후 사회적 위기의 장기적 대응전략을 위한 위드코로나 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한 정책의제 발굴 방안을 심화하여, 미래 성평등 사회에 대한 공동의 비전과 사회적 합의의 방향성을 데이터 기반 정책의 추진목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 정책의제 발굴 체계의 안정적·상시적 구축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제고가 필요하다. 데이터 3법¹²⁾이 개정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동이용에 관련된 다양한 법령들이 통과되면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집행,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 생산 및 활용 관련 정책에서 성별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범주의 경험을 포괄하기 위한 제반조건들을 살펴보고, 이의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정책연구에서 성인지데이터를 어떻게 동원할 수 있고, 성인지적 관점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갖는 고유한 관점과 그 실질적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제 발굴 체계와 정책수요 예측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제 발굴 시 여성연구의 고유한 관점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타 분야와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빅데이터 결과 해석과 전문가 식견을 결합하여 의제를 발굴할 때 여타 정책의제 개발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절차나 체계가 무엇인지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위드코로나 시기는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코로나와의 공존과 장기적 대응을 마련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급격한 위기는 사회적 충격과 해체를 동반하지만, 동시에 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의 의제설정을 위한 사회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팬데믹 위기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성찰하고, 위기 속에 심화된 성별 격차와 균열, 불평등, 갈등 지점들을 다시 사회적 차원의 합의로 이끌어냄으로써 좀 더 성평등한 사회로의 회복이라는 공동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여성정책의 비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12)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1호, 2021. 6. 8., 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을 통칭한다.

• 참고문헌 •

- 고길곤·신수현·박세나·김경동·정다원(2019).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사례.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문유경·김영택·박건표·차지영(2016).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유경·전기택·배호중·김근태(2017).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미·신우리·김은정·임연규(2021).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여성 정책의제 발굴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Friedman, S., Schmer-Galunder, S., Chen, A., & Rye, J. (2019, August). Relating word embedding gender biases to gender gaps: A cross-cultural analysis. In Proceedings of the First Workshop on Gender Bia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p. 18-24).
- Martínez, C. D., García, P. D., & Sustaeta, P. N. (2020). Hidden gender bias in big data as revealed through neural networks: Man is to woman as work is to mother?. Revista Española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REIS), 172(172), 41-76.
- Saja, A. M., Teo, M., Goonetilleke, A., & Ziyath, A. M. (2021). A critical review of social resilience properties and pathways in disaster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1-15.
- 보도자료 및 인터넷 자료**
- 기선원(2020.9.25.). 「코로나 이후 높아진 30대 여성 자살률...비대면 시대 사회안전망 더 촘촘히 [기고]». 경향신문(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34484>에서 2022.1.11. 인출).
- 류인하(2020.5.19.). 「서울시 2040 워킹맘 '코로나19' 부담해고 위기...절반 이상 스트레스 고위험군». 경향신문(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09796>에서 2022.1.13. 인출).
- 류인하(2020.12.27.).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직장맘 출퇴사 원인됐다». 경향신문(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50798>에서 2022.1.25. 인출).
- 안서현(2021.8.10.). 「복직 포기한 엄마들...돌봄 부담에 '경력 단절' 증가». SBS(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913750>에서 2022.1.13. 인출).
- 양민철(2021.2.1.).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무직·주부 스트레스 많다». KBS(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981575>에서 2022.1.11. 인출).
- 이순용(2019.8.26.). 「싱글맘 우울증 주의 ... 기혼모 보다 위험성 두 배 높아». 이데일리(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454238>에서 2022.1.11. 인출).
- 이정윤(2020.12.14.). 「코로나가 방치한 방배동 母子의 비극...60대 엄마 고독사, 발달장애 아들은 노숙». 아시아경제(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809728>에서 2022.1.15. 인출).
- 채널A 뉴스A 라이브(2020.9.18.). 「화재 전날 외출한 '라면 형제' 엄마...코로나 돌봄 사각지대». 채널A(네이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97788>에서 2022.1.15. 인출).